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2월 16일 (금)

(윤력 1월 7일)

Пятница

16 февраля 2024 г.

№ 5 (1207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음력설 행사가 펼쳐졌다.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북방소수민족 원주민어로 사할린에서 심포지엄 개최

러시아 연방 극동 북방소수민족 원주민어로 국제 심포지엄이 사할린에서 개최된다고 '키흐키흐'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전통문화 보전 및 개발센터가 전했다.

이번 제3회 심포지엄은 2월 21일(수) 국제 고유어의 날에 열리며, 이에 대학생, 교육기관, 과학계 및 문화계, 향토역사 분야 대표들과 러시아 연방 극동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대표들이 모인다.

일정에는 언어보전에 따른 활동 경험 연구 및 교육시스템 속에 언어와 문화가 차지하는 지위 결정이 포함돼 있다. 심포지엄의 결과는 논문집으로 편찬된다.

2024년 사할린 마을 3곳, 새로운 문화회관 개관

올해 사할린주 솔로위요브카, 오노르, 아도-티모워 마을에 새로운 문화회관이 문을 연다고 지역 문화부가 전했다.

건축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문화'국민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다.

"문화회관 개건은 가장 대규모 국민계획 중 하나로서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방문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문화회관 연결망을 현대화할 뿐만 아니라 확장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올가 루비모와 러시아 연방 문화부 장관이 언급했다.

쿠나쉬르 이착륙활주로 현대화

사할린주 정부와 러시아 연방 교통부 사이에 합리적 협력이 체결되어 쿠나쉬르 섬에 이착륙활주로를 현대화하면서 그 덕분에 공항은 악천후 여건에서도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 방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쿠나쉬르와 시코탄섬 사이를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도 확보됐다. 지역 항구 일부를 개건하고, 쿠나쉬르에 입도심사국을 건설했으며, 현재 코탄섬의 말로쿠릴스코예 마을에 해상터미널 건설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유즈노쿠릴스크 지방자치체 시장 파벨 고밀렘스키가 주지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주지사 방문 시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사할린, 러시아 스노보드 청각장애인 선수권대회 개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할린에서 러시아 청각장애인 스노보드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이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노워시비르스크, 한티만시스크 자치구, 사할린주 - 전국 7개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 40여 명이 참가하여 경기 첫날에는 평행대회전, 2월 18일에는 평행회전, 19일에는 스노보드 크로스 경기에 출전한다.

사할린주 정부, '오스트로브나야' 양계기업의 생산 복구 위해 지원

자체 연구소들이 사할린의 닭들에 게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한 가운데 기업에서는 감염된 닭들을 처분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비상조치를 실시했다. 비상사태는 현재 사할린주 정부의 특별 통제 아래 있으며, 방역조치가 완료된 후 양계기업에 닭고기와 달걀 생산 복구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스트로브나야'양계장은 러시아 농축산부와 수의학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예방과 감염된 닭 처분을 위해 모든 필요한 예방, 진단 및 통제와 특별 조치들을 실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경 5km의 농장의 닭들은 살처분된다. 이 조치에 저촉되는 사할린 주민들은 지역 예산의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며, 보상금에 대한 문의는 농축산부 핫라인(8(4242) 46-72-05)으로 문의할 수 있다.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양계기업은 유지되며, 그 사업도 복구시킬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우리는 우리 지역 양계장의 미래에 대한 사람들과 양계사업자들의 불안감을 알고 있다. 우리는 양계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확실한 정책을 채택했다. '오스트로브나야' 양계장은 사할린 기업들 중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로서 그 역사는 60년이 넘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해왔다.

이 기업의 사업은 사할린주 식품안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위생 및 방역조치가 끝나는 대로 양계공장의 작업을 복구하고, '오스트로브나야'양계장은 지역의 식품안전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기업중 하나이며, 지역 정부는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와짐 로코토프 양계장 대표이사는 "양계조합은 양계들의 감염 폭증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고려해 양계사업의 복구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사할린주 농축산 및 무역부 인나 파블렌코 장관은 개별적으로 양계장을 위한 긴급회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라 양계산업의 생산 복구시기를 예견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의 생존성 유지를 지원하고, 양계장의 신속한 정상작업 복구를 위해 수정란과 부화된 병아리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달걀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며, 닭고기는 더 일찍이 진열대에 나올 예정"이라고 지역 농축산 및 무역부 장관이 말했다. 이 시기에는 러시아 다른 지역들의 양계도매상들이 사할린주에 달걀과 닭고기를 공급하므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제품의 필요한 양을 구매할 수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대규모 스포츠센터 2024년 여름 준공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2월 12일(월) 가가린 시공원에 위치한 대규모 건축시설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앞으로 건설될 사할린 청소년 수영종목 스포츠센터에서는 수구 종목, 아티스틱스위밍(수중 발레) 종목을 비롯해 이름난 코치의 지도 아래 다른 수영종목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파도 모양으로 디자인한 수영종목 스포츠센터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행정부와 함께 주변 구역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위한 쾌적한 장소가 될 것이다. 이에 3000톤 이상의 철재 구조물이 건설됐고, 창문과 지붕이 설치됐다. 현재 외벽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전면공사 마무리가 진행 중이다. 건설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 올림픽 수준의 수영센터를 완공하게 된다.

"모든 기술적인 연결망이 완료되었고, 90% 이상 건설자재들이 공급되었다. 장비들을 구입하고, 모든 외관공사에서도 문제는 없다. 전면공사는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부공사로는 관중석을 설치하고 있어 1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자리가 배치된다."고 시행업체가 밝혔다.

수영종목 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은 길이는 30mX25m이며 길이는 3m - 6m로서 여기서 수구종목, 다이빙, 수중 발레 종목의 훈련과 경기가 진행되고, 수영종목을 위한 수영장 규모는 길이 50mX25m, 깊이 3m-10m이다.

수영센터의 면적은 17,500m²로 여기에 식당, 선수와 코치, 심판을 위한 숙소,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단지, 지하주차장이 배치된다.

"수영종목 스포츠센터는 '가스프롬' 회사가 사할린주에 제공하는 선물로서 사할린 지역에 대한 투자는 사할린에 석유 및 가스산업에 희망이 있음을 보증한다. 이 수영종목 스포츠센터는 극동지역의 진주가 될 것이며, 우리의 재능있는 아이들을 최고의 선수로 훈련할 곳이다. 이 일에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며, 러시아의 유명 수영선수로서 올림픽 4회 연속 챔피언인 블라디미르 살니코브가 총지휘를 했다.

특별 군사작전 참전자를 적극 지원한 사할린 한인들에게 메달 수여

지난 9일(금), 설 전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한인문화센터를 방문해 사할린주한인협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는 설 명절을 축하하고 특별군사작전 참전자들에게 도움을 준 사할린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인문화센터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전통은 어르신들에게서 어린이와 청년에게 전승됩니다. 여러분은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일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할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장기간 성실하게 일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경제 및 사회 분야의 프로젝트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및 지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 주십니다. 또한 특별군사작전 지역에 있는 우리 사할린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함께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를 전합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말했다.

주지사는 이날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박순옥 회장, 임 엘비라와 이 파벨 임원들에게 '사할린 주 - 전선' 4급 메달을 수여했다.

"러시아는 우리의 모국이라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의약품을 그곳 주민들에게 보내고, 군인들을 위해 장비와 군복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동의 일입니다. 우리 디아스포라를 대표하는 사할린동포들도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라고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장이 말했다.

한인문화센터를 방문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태권도 훈련장도 돌아보고 훈련생들의 선전을 기원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진: 이예식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35주년 추념행사 진행

2월 15일은 해외에서 군복무를 수행한 러시아 군인 날이다. 이날 러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해외에서 전몰한 참전용사들을 추념한다.

지난 15일(목)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슬라와(영광)'광장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35주년 추념집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참전용사, 전사한 군인들의 친척, 청소년 애국 단체 활동가, 정부기관 대표 등이 참가했다. 이날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가 주지사

와 정부를 대표해 가장 소중한 것 - 삶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모였으며 "무한한 용기, 적극적인 삶의 자세 및 조국에 대한 사랑에 대해 전투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15,000여 명의 소련군 장병들이 전사했고, 사할린 주민 43명이 아프가니스탄과 체코나에서 목숨을 잃었다.

현재 사할린주에는 5,216명의 참전용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올해,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190개의 주택가 안마당 근본적으로 개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1000개 주택가)연방기회 덕에 올해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190개의 주택가 안마당을 근본적으로 개건하고, 사할린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79개 주택가 주변 구역을 정비하며, 11개 구역이 추가로 정비된다.

사할린 지역에 보수공사가 필요한 나머지 주택가 안뜰은 올해 보수공사를 지속하게 된다. 계획상 600개 이상의 주택가 구역을 변경시킬 계획인 가운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배려, 보호, 존중>주지사 기획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서 이에 필요한 모든 주택가 안뜰과 진입로를 정비하는 과제를 설정했다.

본격적인 보수공사 단계는 날이 풀리는 대로 시작될 전망이며, 주택가 안뜰 보수공사의 대부분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코르사코브,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대적인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필요한 서류들이 작성되고 있고, 공사 시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친 후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다. 벌써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지사는 전 구역의 보수공사를 여름 끝무렵까지 마치도록 지시했다."고 사할린주 주택공사사업부 나탈리아 쿠프리나 장관이 말했다. 주요 보수공사의 일환으로 인도, 진입로 수리, 운신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여건 조성, 조경, 작은 건조물 설치, 조명 설치, 주차장 정비, 휴식 및 놀이 공간과 아동 놀이터 구역의 정비작업이 정해졌다.

이모저모

<가족 이야기>얼음 그림 전시회에 사할린 주민들 초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가족의 이야기> 얼음 그림 전시회가 개최됐다고 가가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의 텔레그램 채널이 전했다.

표도로와 엘레나 부시장과 게라시모와 이리나 시 행정부 문화관광청장, 칼류쥬니 워토르 시공원 사장 등 공식적 인사들이 관람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사할린의 얼음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을 감상하러 도시공원으로 오십시오!"라고 방송에서 전했다. 입장은 무료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выставку ледовых картин «Семейная сказ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о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ледовых картин «Семейная сказка».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Перед гостями выступили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вице-мэр Федорова Елена, глава департамента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ерасимова Ирина и директор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Калюжный Виктор.

«Приходите в городской парк созерцать красоту, замерзшую в сахалинских льдах!»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ход бесплатный.

2023년에 약 50만 명의 여행객이 사할린과 쿠릴열도 방문

사할린주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수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러시아 은행 논평 2월호의 '지역 경제: 정부 논평'에서 언급됐다.

사할린 지역으로의 여행 횟수는 60% 증가했다. 지난 2023년에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계절과 상관없이 약 472,000명에 달했다.

"사할린 지역 관광이 점차 계절을 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 흐름의 증가는 추가 수요를 제공해 이로써 물가상승이 촉진되고 있다."고 러시아 은행 사할린 지부 세르게이 필리포브 부은행장이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측이 전하는 바로는 봄과 여름에 국내 항공노선에 항공편의 확대와 탑승객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 항공기 주기장이 추가로 마련되었고, 공항 청사에는 추가로 갤러리와 이륙을 기다리는 탑승객들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공간이 개장된다.

В 2023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бывало почти 500 тысяч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Чисто туристов, посетивших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активно растет.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в февральском выпуске доклада Банка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комментарии ГУ».

Число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в регион стало больше на 60%. В прошлом 2023 году туристы совершили почти 472 тысячи поездок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ремени года.

«Регион постепенно уходит от ярко выраженной сезонности. Увеличение турпотока обеспечив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прос в области, тем самым стимулируя рост цен»,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управляющего Отделением Банк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Филиппов.

Как отмечают в аэропорту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весной и летом ожидают увеличение числа рейсов и рос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на внутрироссийских авиалиниях.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явилась еще одно стоянка для самолетов, а в здании аэропорта откры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галерею и нов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е для отдыха вылетающих пассажиров.

사할린의 기업, 정부 품질상 수상

2023년 러시아 연방 정부 품질 우수상이 발표된 가운데 사할린의 회사가 수상했다고 연방 의회 공식사이트에서 전했다. 홈스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할린-웰프-서비스'회사를 포함해 12개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업의 리더십, 정책, 전략, 직원, 협력, 생산품, 서비스, 주요 성과 등 9가지의 부문에서 분석해 기업의 효율성과 경영을 평가했다.

"로스카체스트워(러시아 품질청)는 정부가 수여하는 상의 조직과 진행에 따른 종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상 부문에 대한 우수자 결정은 정부부처 및 대기업 연맹의 대표들로 구성된 품질 분야의 러시아 연방 정부 시상평가위원회가 한다."고 밝혔다.

부문별 우수자 가운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스크, 탐보브주 기타 러시아의 행정자치지역들의 기업들이 포함되었다. 러시아 품질상은 1996년에 제정되었다.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пания получил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ую премию качества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лауреаты прем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в области качества 2023 года. В числе побед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па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кабинета.

Высокой оценки удостоены 12 организаци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и СП ООО «Сахалин - Шельф - Сервис», действующая в Холмске. Эксперты оценивал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 управление компании по девяти критериям: ли-

дерство, политика и стратегия, персонал, партнёрство, продукция, услуги, ключевые результаты.

«Комплекс работ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премии осуществляет Роскачество.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звание лауреатов Премии утверждает Совет по присуждению Прем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качества, в который входят руковод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главы крупнейших деловых объединений»,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Также в число победителей вошли компании из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аранска, Тамбов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Премия учреждена в 1996 году.

사할린 학생들이 식물연구 앱 만들어

유즈노사할린스크 3호 김나지야에 있는 '관토리움'의 학생들이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향토적 오솔길'이라는 새로운 앱을 만들었다고 학생 테크노파크에서 전했다.

학생들은 사할린 식물의 고유종과 채취금지 식물에 대한 앱을 만들어 생태오솔길의 풀들을 연구하고, 삽화도 실었다. 관토리움 산업디자인의 강사이자 이 기획의 지도자인 클라우디아 이와노와는 "사람들은 이 기획에 즉시 열의를 보이며, 자신의 지역들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작업에 전문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래밍은 학생 테크노파크의 학생인 안나 고르바토와가 담당했다.

이제는 산책 시 앱을 이용해 생태오솔길의 팻말 큐알코드를 사진으로 찍으면 식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퀴즈에도 참여할 수 있다.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создали приложение по изучению растений

Воспитанники «Кванториума», созданного при гимназии №3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дставили новое приложение «Краеведческие троп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детском технопарке.

Ребята презентовали приложение по изучению эндемиков и краснокнижных растений Сахалина. Они изучили зелень экологических троп и создали иллюстрации.

«Видно, что люди прям загорелись идеей, рассказали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о своих района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вовлеклись в работу», - говорит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Клавдия Иванова, наставник промдизайн-квантума.

За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е была ответственна ученица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Анна Горбатова. Теперь с помощью приложения во время прогулок можно навести камеру на табличку на экотропе, узнать интерес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растениях и сыграть в викторину.

(8면에 계속)

사할린주한인협회, 음력 설맞이 행사 개최

지난 1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음력 설맞이 행사가 약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하늘'타악기팀(지도 송천석)의 북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주최·주관한 이 행사에는 1세 동포 어르신, 공식기관의 귀빈, 협력기관과 단체 대표들, 지방 한인회 대표들, 사할린 한인 2세대들이 참석했다.

축사를 한 블라디스라브 예피파노브 주정부 행정 제1부실장은 "음력설 행사 전날에 한인문화센터를 찾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의 만남을 가지고 결정된 것은 앞으로 사할린주항도박물관에 사할린한인들에 관한 상설전시 코너를 만들고, 씨름경기를 사할린주의 공식 경기종목으로 등재하며, 태권도와 관련된 스포츠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바로 이 소식이 사할린한인들을 위한 음력설 선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의회) 타치야나 루다코와 부의장, 사할린주 두마 의원들, 민족단체와 지방자치체 대표들이 축하인사를 전하며, 사할린에서 한인들과 어울려 살다보니 음력 설맞이도 많은 민족들이 스스로 어울리고, 주한인협회가 사할린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음력설을 축하하며 건강과 행복, 소원이 이뤄지길 기원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은 설 축사를 한 후 세배로 큰절을 올렸다.

이날 손님들을 환영하며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은 "뿌리를 잊지 않고 가족의 전통을 지키고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게 모든 민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전통 한복을 입은 어르신들과 유아들이 무대에서 세배하는 하는 것도 보여주었다. 또한 행사장에서 사할린주지사의 감사장이 수여된 가운데 신 율리아(《에트노스》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과장), 춘 알렉세이(사할린주씨름협회 회장, 박창순(코르사코브 한인회 부회장)이 받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의 감사장은 김 타치야나(사할린주 한인여성회 회장), 이상명(사할린주한인협회 운영위원, 태권도 사범)에게 수여했다.

이날 《에트노스》예술학교 무용단,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과 '희망'무용단, 동포가수 최 율리아 등이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여 행사 참석자들에게 명절 기분을 한껏 안겨주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명절상, 음력설에 빠질 수 없는 떡국 등이 설명절의 기분을 한층 돋우었다. 공식 공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가수들과 신명나는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춤판을 벌였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음력설 맞이 <골로스> 노래경연대회 진행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교장 위로호와 안나)의 한민족문화예술과는 해마다 음력설 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민족의 문화와 예술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항상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식으로 준비한다. 축하공연, 연극, 바자회, 전통놀이 등의 방식으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한마당을 열고 있다. '음력설 미스 선발대회'도 개최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하고, 실행된 행사들은 완성도가 높다.

올해는 음력설 행사의 일환으로 중앙 티비 방송국인 '1(베르비)'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인기 많은 유명 쇼프로그램 '골로스(더 보이즈(The voice))' 노래경연대회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행사를 위해 3개월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고, 학생들은 최종 결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오디션을 통과해야 했다. 그리고 2월 11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 고대하던 음력설 행사가 개최됐다. 대강당에서 열린 '블라인드'오디션에서는 러시아 민속과에서 민속합창예술을 지도하는 수석 교사들 3명(알레쉬코 엘레나, 로고와 타치야나, 라피나 몰리타)이 심사를 맡은 가운데 참가자들 중 12명이 선발돼 결승에 진출하였다. 오디션 참가자들은 자신의 기량을 한껏 뽐내며 재능을 발휘했다. 심사위원들은 멘토로서 4명으로 구성된 팀들을 지도했다. 출연자들은 멘토들이 제안하는 곡을 불러야 했다. 심사위원이 민요 교사였기 때문에 민요나 민속풍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출연자들에게는 어색한 장르였지만 모두 훌륭하게 대처해 청중을 사로잡았다. 한민족과 학생들이 러시아 민요를 잘 불러 서로 다른 민요 속에 흐르는 공통점, 이색적인 점이 서로 녹여들어 큰 매력으로 남았다.



심사위원들은 노래의 독창성과 특징, 스타일을 평가했다. 어떤 노래는 유쾌하게 춤을 추고 싶게 하고, 어떤 곡은 마음에 와닿는 감동을 주어 청중들의 눈시울을 적시게도 했다. 노래 후 심사위원들은 각 팀들에게 감동적인 평가를 한 후 최종결선 진출자를 지명했다. 각 팀에서 1명 씩 총 3명이 결승에 진출했다. 그리고 최종순위는 강당 참석자들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이 되었다.

이번 '음력설 더 보이즈'의 최우수 수상자는 김유미, 2위는 박 아나스타시야, 3위는 김 웨로니카 학생이 차지했다. 석 안나 학생에게는 <승리에 대한 의지> 특별상을 수여했다.

최종 진출자들이 경연을 준비하는 사이 한민족과 학생들은 반별로 무대에 올라 다양한 민속 공연을 선보였고, 무용, 사물놀이, 가야금과 피리를 연주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더 보이즈' 행사의 심사위원들을 비롯해 수상자, 결승 진출자, 축하공연 참가자, '에트노스'학교의 유년생들부터 졸업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음력설을 축하하며 <새해 장난감> 노래 합창으로 유쾌하고 흥겨운 행사를 끝맺었다.

(취재 : 본사 기자) (사진: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제공)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 한민족문화축제 펼쳐

지난 9일(금)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교장 릴리아 젤름비체와)에서 음력설을 맞아 한민족문화축제가 펼쳐졌다. 행사에는 코르사코브 학생들만 아니라 한민족문화를 좋아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및 돌린스크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축제 개막은 용탈을 쓴 학생들이 춤추며 대강당 무대에 올라오는 것으로 시작됐다. 사회자들은 우선 음력설의 풍습과 전통, 의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할린한



국교육원장 정승훈, 코르사코브 '에진스트위(단결)'스포츠클럽 이춘식 대표, 교육기관 지도자를 비롯해 많은 행사 귀빈들을 소개했다.

축하공연 프로그램은 풍부하고 재미있었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팀(중등 학생들)은 이날 영락농악가락을 흥겹게 연주하여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에트노스'학교의 무용단의 화려한 공연과 코르사코브한인회 소속 K-pop 팀들의 춤무대가 흥을 돋우었고, 코르사코브 중학교 학생들의 한국 시낭송, 한국 노래 부르기 등 모든 프로그램은 명절의 흥겨움을 한껏 자아냈다.

공연이 끝나자 모두 체육관으로 이동해 코르사코브의 '에진스트위'스포츠클럽 선수들의 태권도 시범을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 한민족 전통놀이 한마당이 열렸다. 학생들은 팀별로 이동해 투호, 공기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줄넘기 등도 해보았다. 그 동안 어른들은 학교 식당에서 떡국 만들기 요리교실에 참여했다. 이후 모두 대강당에 모여 팀별 ('에트노스'팀, '하늘'팀, 코르사코브 제2학교팀, 코르사코브 제4학교팀, 코르사코브 제5학교팀, 태권도 선수팀, 돌린스크 청소년창작회관팀 등)로 종이복주머니 만들기에 나섰다. 이날 떡국만들기, 복주머니 만들기 등 모든 활동교실 진행은 '한글'사할린창작회(회장 배영희)에서 담당했다.

행사 마무리로 많은 감사장, 상금, 상품권 및 '달달한'선물 수여로 막을 내렸다. 사할린한국교육원도 행사를 후원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농식품부·코트라,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5개소 지정·운영

중동, CIS, 오세아니아 내 5개소 수출·수주 전담 지원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팜은 2023년에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96억불의 수출·수주액을 기록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코트라와 함께 3개 유망권역인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내 무역관 5개소를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 수출·수주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2월 12일 밝혔다.

작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무역관을 제1호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한 뒤 올해 쿠웨이트 무역관, 카자흐스탄 알마티 무역관, 아제르바이잔 바쿠 무역관, 호주 멜버른 무역관 등 신규 4개소를 확대 지정할 것

이다. 해당 권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점지원무역관을 통해 ▲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 시장정보조사 ▲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해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해갈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해외 경험 및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стречая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КО АСК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Ким Хон Ди) передала в ряд районов подарки для пожилых корейцев. Благодарность АСК и лично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Наталье Ю выразили корейцы п. Восток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Макарова, Смирных и др.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9 февраля средняя школа №2 г. Корсакова, где уже много лет преподаетс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овела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священный Новому году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Участниками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не только школьники корсаковских школ, но и гости из Долин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Фестиваль открыл символ нового 2024 г. – дракон. Состоялся замечательный концерт, который собрал на одной сцене группу «Ханыль»,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ДШИ «Этнос»,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евцов, танцоров и чтецов СОШ №2 и др. Яркое шоу-представление показали тхэквондисты спортклуба «Единство».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ялись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игры,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новогоднего корейского супа Ттокгук, а также все школьники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мастер-класса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бумажного «Мешочка счастья».

Было зрелищно, интересно, весело, вкусно.

10 февраля Новый год отмет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рганизатор мероприятия –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За праздничным столом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150 чел.,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слав Епифанов,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Татьяна Рудакова,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РК на Сахалине Чжон Сын Хун и други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1-го и 2-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изаций, сотрудничающих с РООСК.

Было много поздравлений, подарков, с праздничными номерами выступили группа «Ханыль»,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ДШИ «Этнос», ансамбли «Ариран» и «Химан» при ККЦ, певица Че Юлия и др.

10 февраля вечером в ресторане «Баунти Холл»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170 чел., чтобы отметить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тал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 Хан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Алексей Чон), которая пригласила на вечер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депутатов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руководителей АСК, ЮСМОСК и других организаций.

Была разыграна лотерея, высказано много теплых пожеланий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и мира. По словам участников,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 Ханин» подарила много ярких незабываемых эмоций.

Виктория Б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Москве отметили Соллаль

10 февраля в г. Москва состоялся вечер встреч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설날 맞이), по традиции широко отмечаемого на родине наших предков. В этот раз вечер собрал всю корейскую диаспору – жителей Москвы и Подмоскovie, членов ООК, МОО ОСК, Москов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клуба,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Вечере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фициальных орга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сотрудники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во главе с Чрезвычайным и полномочным пос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До Хун, члены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нации, члены Москов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есторан «Териаки» был полностью заня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гостями вечера. Вечер был открыт приветствием и поздравлени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О ОСК Ким Те Сон. Прозвучали поздравления от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всех приглаш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открыл наш ансамбль Кальмеги (갈매기, руководитель Че Геннадий), затем выступили оперная певица Ким Анна, солист 유성찬, сводная группа артистов. В общем, песни не смолкали весь вечер и создали праздничную атмосферу. В память о вечере у гостей останутся снимки, сделанные на фоне банера с надписями, посвященными праздничному вечеру.

Вечер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МОО ОСК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сква), дружным коллективом женсовета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звучали пожелания сделать традицией такие совместные вечера.

Ким Тхе Ик, зам.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О ОСК



Поздравление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на Ли До Хун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радил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 ак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стров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здравил сахалинцев с наступающим праздником и поблагодарил их за помощь участник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объединяет самые разные поколения. Традиции передаются от старших – к детям и молодежи. Вы делаете все,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сво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Хочу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вам за эту важную работу. А также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ноголетний и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В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е в реализации наших проектов в экономике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Поддерживаете инициативы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



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Вместе со всеми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ете помощь нашим ребятам в зоне СВО и их семьям.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это,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градил членов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едалям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фронту» IV степени. Их получили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ъединения Пак Сун Ок, а также его участники Павел Ри и Эльвира Лим.

–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что Россия – это наша Родина. Мы живем здесь, сохраняя сво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Во все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нашей стране, мы стараемся принима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С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тправляем нашим людям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лекарства, помогаем покупа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для солдат. Это наше общее дело.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бойцов, несущих службу в зоне СВО, есть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шей диаспоры,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а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В ходе визита в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посетил тренировку по тхэквондо и пожелал ребятам успехов в спорте, сообщили в департамент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то Ли Е Сик

Вокальное шоу "Голос"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Нового Года

Традиционное празднование Восточного Нового года в детской школе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в этом году прошло в новом формат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Методи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решили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Нового года провести вокальный конкурс по аналогу популярного и всем известного шоу-проекта «Голос», транслируемого на Первом канале Центральн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Подготовка к данн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проходила очень активно в течение 3-х месяцев. Все учащиеся МО «КНИ» прошли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прослушиваний, прежде чем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финалисты шоу. И 11 февраля 2024 года в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12 финалистов, едва справляясь с волнением,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на «слепых» прослушиваниях, пытались «очаровать» членов жюри (наставников) и повернуть их в свою сторону.

Членами жюри или наставниками любезно согласились стать преподаватели Методи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Народно-хоровое искусство»:

Алешко Елена Ивановна -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Ф, заслуженный педаго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ногократный лауреат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кальных конкурсов;

Рогова Татьяна Юрьевна -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уч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многократный лауреат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кальных конкурсов;

Ляпина Лолита Сергеевна – победител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Универвиденье. Авторы», победитель музык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радио АСТВ «Наша музыка», автор-исполнитель собственных песен, многократный лауреат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кальных конкурсов.

По завершении «слепых» прослушиваний каждому из наставников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команду из 4 финалистов. Перед командами стояла задача – исполнить песню, предложенную их наставником. И здесь сложность заключалась в том, что все наставники, являясь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в области народного пения, естественно предложили исполнить композиции именно из этой музыкальной области. Но все участники шоу блестяще справились со своей задачей, покорили зрителей совершенно удивительным сочетанием двух таких разных культур –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и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аждая из песен наставников отличалась своей оригинальностью, характером и стилистикой. Одна «зажигала» и вызывала желание пуститься в пляс, другая «трогала»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вызывая слезы у всех зрителей. После исполнения песни, каждый наставник произнес трогательную речь членам своей команды, а затем сделал выбор, назвав имя суперфиналиста.

Итак, в суперфинал вышло 3 участника, по одному из каждой команды. Далее уже зритель решал их судьбу путем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я.

В итоге, победителем шоу-проекта «Голос» стала Ким Ю Ми.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а Пак Анастасия, третье - Ким Вероника. Директор ДШИ «Этнос» Ворохова Ан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вручила спецприз «За волю к победе» Шек Анне. Остальные участники финала также получили небольшие призы.

В завершении вечера наставники, победители и все финалисты шоу-проекта «Голос», а также все участники праздничного концерта, учащиеся всех классов МО «КНИ», от дошкольников до выпускников, исполнили песню «Новогодние игрушки», поздравив всех с Восточным Новым годом!

(Источник: сайт ДШИ «Этнос»)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ИД РФ: РК демонстрирует желание не разрывать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РК переживают сейчас непростые времена. Во многом по причине союз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Вашингтоном Сеул был вынужден поддержать коллективный Запад в развязанной против России гибридной войне, инструментом в которой является Украин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интервью РИА Новости директор перв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МИД России Иван Желуховцев. «Несмотря на серьёзные различия в подходах, считаем важным поддерживать открытыми каналы коммуникации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партнёрами, которые подтвердили аналогичное понимание на состоявшихся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консультациях на уровне заместителей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 Сеуле», - отметил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В контактах на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ях РК демонстрирует желание не разрывать наработанные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оставить за собой 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ся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Мы такой настрой приветствуем, однако будем судить о намерениях Сеула по конкретным шага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вопросах, касающихс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нашей страны», - подчеркнул Желуховцев. Возвращени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траекторию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зависит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 добавил он.

Сеул продолжит стремиться к воссоединению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Несмотря на нынешнюю ситуац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действия Пхеньяна, Сеул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добиваться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азделё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Ким Ён Хо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ежегод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случа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ыходцы с Севера,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К. Они собрались в пограничном городе Пхаж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чтобы отдать дань уважения предкам и членам семей, оставшимс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Мы не откажемся от поиска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решений проблем, связанных с разделёнными семьями и похищенными», - сказал Ким Ён Хо. Отметим, что Сеул остаётся открытым для диалога с Пхеньяном по гуманитарным вопросам, он призвал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осстановить канал связи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торый был закрыт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должна игнорировать боль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В 2022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едложила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о воссоединении семей, но Север так и не ответил на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ЦТАК: КНДР разработала новые снаряды для РСЗ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вооружений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разработала управляемые снаряды для реактивной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РСЗО) калибра 240 мм. Как сообщило 12 феврал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Академия оборонных наук КНДР провела накануне успешные испытания новых боеприпасов для оценки возможностей управления их траекторией и других параметров. «Разработка управляемого реактивного снаряда калибра 240 мм и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траекторией качественно изменит возможности реактивных орудий нашей армии»,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вооружение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комплексы РСЗО калибра 600 мм, которые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качестве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отследили стрельбу из реактивной установки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в направлении Жёлтого моря из района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Нампхо.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не была обнародована, поскольку военные сообщают лишь об испытаниях крупных вооружений.

«Доктор Слам» - лидер чарта неанглоязычных телесериалов в Netflix

7 февраля романтическая комедия «Доктор Слам» поднялась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неанглоязычных сериалов на глобальной потоковой платформе Netflix. С 29 января по 4 февраля сериал собрал более 2 млн 900 тыс. просмотров и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числу просмотров в девяти странах, включая РК, Гонконг, Индонезию, Малайзию и Сингапур, а также вошёл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 в 31 стране. «Доктор Сла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двух школьных друзьях, которые случайно встречаются спустя 14 лет. Столкнувшись с худшим кризисом в жизни, они неожиданно находят утешение друг в друге. Сериал выходит в эфир каждую субботу и воскресенье на канале JTBC с 27 января.

В 2023 году экспорт сочжу превысил 100 млн долларов

Экспорт корейской рисовой водки сочжу составил в 2023 году 101 млн 400 тыс.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8,7% больше, чем в 2022 году.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экспорт сочжу превышал 10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в 2013 году. Сочжу, поставлявшаяся за рубеж, в прошлом потреблялась в основном жителями РК, но в рамка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й поп-культуры она приобрела популярность во всём мире. Крупнейшим импортёром сочжу был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Япония (более 30 млн долларов), за ней следовали США (23,5 млн долларов).

(RKI)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Лучше общаться, даже если это сложно...»

Сеул, 8 февраля – ИА РУСКОР

Россия не хочет, чтобы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с Южной Кореей «достигли дна», и считает важным сохранить статус-кво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дальнейшей эскалации, заявил ее главный посланник в Сеуле, поскольку две страны по-прежнему расходятся из-за СВО на Украине,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других вопросов.

Посол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сделал это высказывание, поскольку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тали напряженными после конфликта России и Украины, 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 в связи с растущим военны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Москвой. Для Сеула расширение военных связей России с Севером вызвало новые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безопасности. Южная Корея, США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подозревают, что Север предоставляет России оружие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войне на Украине в обмен на помощь Москвы в оружей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что Россия опровергает.

«Наши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не так хороши, как мы надеемся,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и не достигли дна», — сказал Зиновьев в интервью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агентству Yonhap. «Нашим глав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является поддержание и стабилизац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ые у нас есть,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обострения связей до конфронтационного уровня и воздержание от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вызвать дальнейшее ухудшение», — сказал он через переводчика. «Поступа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я считаю, что мы можем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отношений в конструктивное и нормальное русло».

Зиновьев, первый новый посол России в Сеуле более чем за пять лет, занял свой пост в начале января. Его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озвучали всего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еул и Москва обменялись резкими словами по поводу критики Россией комментариев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о стремлен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к разработке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и торговле оружием с Россией.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назвала высказывания Юна «вопиюще предвзятыми» и «одиозными», обвинив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ов в рост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еул в ответном заявлении, заявил, что высказывания игнорируют реальность.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 Сеуле вызвало Зиновьева для подачи протеста. Комментарий Захаровой встревожил Сеул, поскольку он был обнародован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когд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ого дела России Андрей Руденко находился с визитом в Южной Корее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официальными лицами Сеула. Не добавляя комментариев, посол принял к сведению тот факт, что диалог между двумя сторонами все еще продолжается, несмотря на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Я думаю, что лучше общаться, даже если это сложно, чем вообще не общаться», — сказал Зиновьев.

Напряженность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проявилась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месяца, когда Москва предупредила о «полном разрыве» отношений с Сеулом в связи с замечаниями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Син Вон Сика о «личной поддержке» идеи полной поддержки Украины, включая военную помощь. Росс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 такие поставки оружия Киеву как «красную черту», которую Сеул не должен пересекать. Зиновье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ози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Украине только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ыграла важную роль в поддержании связей. «Эта пози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очень важна», — сказал он. «Поскольку Корея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этой позиции, мы мож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на этом уровне», — сказал он.

Что касается списка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Зиновьев призвал Сеул отменить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Южную Корею из списка. В декабре Южная Корея ужесточила экспортный контроль в отношении Москвы в отношении товаров двой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в военных целях.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СМИ: США стягивают к Корей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пять авианос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В апреле-мае этого года в район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оберутся сразу пять авианос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ВМС США. Такая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демонстрация военной силы будет сделана для оказания давления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и Китай.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подобный шаг может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рос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плоть до проведения КНДР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в качестве ответа на угроз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 ссылкой на американскую радиостанцию "Голос свободной Азии".

Как отмечает радиостанция, все идет к тому, что в апреле-мае недалеко от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оберутся сразу пять авианосных удар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АУГ) ВМС США.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регионе уже находятся три авианосца США: Ronald Reagan (CVN-76), Theodore Roosevelt (CVN-71) и Carl Vinson (CVN-70). Каждый из них имеет также группу кораблей сопровождения и поддержки, включая крейсера, эсминцы, подводные лодки и проче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ним вскоре добавятся еще две АУГ во главе с авианосцами George Washington (CVN-73) и Abraham Lincoln (CVN-72). Все упомянутые авианосцы являются атомными, имеют водоизмещение около 100 тысяч тонн 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одни из крупнейших боевых кораблей мира.

По информации радиостанции, авианосец Abraham Lincoln 5 февраля вышел со своей базы в Сан-Диего (США) и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периода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и должен прибыть в западную часть Тихого океана, в район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УГ во главе с авианосцем George Washington должна подойти в этот же регион в апреле-мае для ротации с авианосцем Ronald Reagan,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проходит плановый осмотр и ремонт на японской базе в порту Йокосука.

Учитывая, что стандартный срок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у АУГ ВМС США составляет полгода, то в этом регионе будут до апреля и июня находиться также авианосцы Theodore Roosevelt и Carl Vinson. Таким образом выходит, что примерно в апреле-мае неда-

леко от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соберутся сразу пять авианосных удар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ВМС СШ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США отказались отвечать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сославшись на соображ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Эксперты же гадают, зачем США стягивают в регион такую военную мощь, которой здесь не видели уже очень давно, если видели вообще.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АУГ более чем достаточно для ведения полноценны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и нанесения ударов большой силы и масштаба. Напомним, что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сразу пять авианос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США собирали лишь один раз, когда вели войну в Ираке.

Радиостанция "Голос свободной Азии", цитируя различных военных экспертов США, высказыва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это скорее всего будет попыткой устрашения КНДР и Китая, чтобы удержать их от тех действий, которые не выгодны Вашингтону. Отметим, что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йдут парламентские выборы, а в мае на Тайване - инаугурация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Другие эксперты полагают, что подобный подход США вместо эффекта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успокоения" может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обратную реакцию - рос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Так, посол России в Пхеньяне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в интервью СМИ РФ не исключил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КНДР очередных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в случае опасных действий со стороны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Не исключаю,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в интересах укрепления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сво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удет вынуждено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ядерного испытания», - сказал он, отметив, что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американские провокации продолжатся и приобретут более опасный характер. Дипломат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это нежелательный вариант развития событий, н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это будет лежать на американцах и их союзника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Лучше общаться, даже если это сложно...»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Такого рода решения не помогают поддерживать уровень нашего предметного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сказал он. «Минимальным требованием для лиш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статуса недружественной страны является для Сеула отмена санкций против России». Что касается углуб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осол повторил позицию своей страны, отрицая любую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бвинения о воен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еспочвенны и не проверены. Мы имеем право развивать наши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 добавил он.

Несмотря на трудности, Зиновьев сказал, что в

течение своего срока он приложит усилия, чтобы помочь добиться позитивного прогресса в отношении с Южной Кореей, страной, с которой Россию объединяет «долгая и богатая история». «Это отношения, которые не начались 33 года назад, когда две страны установ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о поддерживаются гораздо дольше», — сказал он, имея в виду первый двусторонний торговый договор, датированный 1884 годом. «Я надеюсь, что в будущем в истории наших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будет много следов радостных событий, а не печальных», — сказал Зиновьев. «Россия готова пойти по этому пути, но нам также нужно такое же мышление корейски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Более 90%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КНДР невозможной

91% южнокорейцев скептически относятся к возможности отказ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т своей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1.043 взрослых жителей РК, проведенного агентством Gallup Korea с 15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по 10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аналогичный ответ дали 77,6% участников подобного опроса. 60,8%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маловероятным, что США применят ядерное сдерживание в случ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непредвиденной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коло 39,3%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Вашингтон, несмотря на риск,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именит расширенное сдерживание для защиты РК.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3%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KBS World**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ажет поддержку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АО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Независимые лаборатории подтвердили у сахалинских кур высокопатогенный грипп птиц.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оперативно начали проводить мероприятия, чтобы ликвидировать очаг и не допус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Ситуация нахо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ротивоз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птицефабрике будет оказана необходимая поддержка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мяса птицы и куриного яйца.

На АО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предпринимаются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и и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 ликвидацию очагов высокопатогенного гриппа птиц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иказом Минсельхоза России и с ветеринарными правилами.

— На предприятии установили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ой пункт, разделили на грязную и чистую зоны. Погибшую птицу уничтожают путем сжиг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тицефабрики. Вывоз биолог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за ее пределы запрещен ветеринарными правилами. Сотрудники,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сь в очаге инфекции, не покидают территорию и будут оставаться здесь до окончания ликвидации очагов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ле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дезинфекция с контролем качества и снят карантин, —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ветеринарии и племенного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за Кузьменко.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и в радиусе 5 километров будет изъята птица у фермеров. Сахалинцы, которых затронет эта мера,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выплату компенсаци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выплат следует обращаться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агентства: 8 (4242) 46-72-05.

Как завер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предприятие будет сохранено, а его работа восстановлена.

— Мы видим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трудового коллектива и людей за судьбу нашей островной птицефабрики. Конечно же, нами принято однозначное решение помочь ей встать на ноги.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 одно из старей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Более 60 лет она обеспечивае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каче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ей. Ее работа — это и вопрос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только завершатся санитарные и противоз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нет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работы фабрики.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гиона, «Островной» уделена одна из ключевых ролей, поэтому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окажут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Директор птицефабрики Вадим Рокото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коллектив предприятия готов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ее работы, учитывая факторы, которые стали причиной всплеск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птицы.

— Сегодня все силы брошены на борьбу с этой бедой, сотрудники настроены решительно и оптимистично. Спасибо губернатору 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ддержку.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восстановим птичье стадо и приме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чтобы такая ситуация никогда не повторилась. Уже проработан план усиления мер санитар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а также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техн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 сказал Вадим Рокотов.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на Павленко лично проводит ежедневные оперативные совещания на птицефабрике.

— Специалисты сделали расчет, у нас есть понимание о период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птицевод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кажет поддержку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я и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инкубационного яйца и суточных цыплят для скорейшего возобновления нормальной работы птицефабрики. По оцен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будет восстановлено производство яйца. Мясо птицы должно появиться на прилавках раньше, — отметила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сельхозторга.

На этот период поставк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яйца куриного и мяса птицы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оптовыми пред-

приятиями из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продукцией в необходимом объем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феврале обсудят стратегию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ахГУ в концепции цифров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просы подготовки к нов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по разработке стратеги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концепции «Университет 4.0 (цифровой университет)» обсуд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комитет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формируются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научные проекты будущ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Участники комитета обсудили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сессию при участии Сбера по разработке стратеги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концепции «Университет 4.0». Основными треками станут сквоз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инженерном образовании и в цифровых платформах, развитие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системы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го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рамках сессии,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21-22 февра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рупнейших вузов страны,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индустриальные партнеры сформируют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концепцию будущег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 Одна из наших задач — перейти от инженерной подготовки к инженер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Для этого будут созданы инженерные команды под реализацию конкретных проектов, запущен институ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магистратуры для вовлечения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в решение задач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аспирантура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высшей квалификации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учных школ. Сквоз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СахалинТех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цифровую платформу, интеграцию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включая онлайн-курсы, виртуальные лаборатории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цифровых сервисов. Ключевые ИТ-сервисы платформы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уже проработаны, представлена концепция вирту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использова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раз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на одной цифровой платформе,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Также в рамках сессии рассмотрят развитие креативных индустрий в СахалинТех, обсудят конкрет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модифик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с целью усиления творческого и креативного компонентов, а также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запуска стартапов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бизнес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 Мы привлекаем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ерспективных ученых, работаем над повы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Но это делается не просто, чтобы дать боль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нашей молодежи, а для масштабного развития как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так и страны в целом. Именно будущим поколениям предстоит развивать экономику на основе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передового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е мы сейчас закладываем и формируем. А без науки это сделать невозможн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и.о. ректора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уже открыли три новые лаборатории. Здесь студенты и ученые остров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могут проводить эксперименты и совершать открытия в области электрохимических источников тока,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й и прикладной химии и прикладной экологии. Лаборатории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приоритетным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ематикам. Важно, что ученые, которые возглавляют эти лаборатории, готовы решать задачи партнеров, 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со студентами и вместе с ними формировать инновационные решения. Новые лаборатории станут еще одной точкой притяжения как молодых умов, так и состоявшихся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Передовой инженерной школы СахГУ в Нефтегазов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парке будет развернуто десять современных лабораторий, под которые уже ведется поиск компетентн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оздаваемый лабораторный комплекс станет ос-

ново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Напомни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сегодня возводят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дать 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6 году. А в 2025 должно завершить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г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недряют травматологи-ортопеды дет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Специалист федеральной клиники провел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ллег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менению передовых ортезов. Современные средства реабилитации после травм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для лечения и реабилитации детей-инвалидов, маленьких пациентов с ДЦП и друг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костно-мышечной системы.

Низкотемпературный пластик начнут применя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ля фиксации поврежденных суставов у детей. Наличие таких патологий приводит к ограничению подвижности конечностей. Без лечения болезнь прогрессирует, человек теряет способность к двигательной активности. Такое состояние наблюдается у детей с ДЦП из-за повышенного тонуса мышц, а также после серьезных травм и при других заболеваниях.

— Для нас это новая методик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гипса у ребенка с ДЦП неудобно ни самому малышу, ни ухаживающи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ни медперсоналу. Низкотемпературный пластик — легкий, дышащий, с ним можно мыться. Мы готовы к применению нового материала, с которым нашим пациентам будет значительно легче проходить реабилитацию и послеопер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 рассказал заведующий травматолог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дет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Георгий Парсаданов.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астер-клас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летел профессор Анатолий Орешков из ведущего в стране профильного центра —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детской травматологии и ортопедии имени Г.И. Турнера Минздрава РФ. Профессор показал сахалинским врачам все тонкости по использованию термопластика.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ортеза необходимы специальные пластины из поликарбоната.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горячей воды материал становится пластичным, это позволяет придать изделию любую форму.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результата в больницу пригласили ребенка, который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получил сильнейший ожог. Из-за этого пальцы руки потеряли двигатель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В федеральном центре мальчику вживили систему электростимуляции, позволяющую выполнять несложные движения. Сегодня специалисты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ы приступили к следующему этапу — удалению системы и дальнейшему наложению ортеза из термопластика.

— Это сложная операция, раньше такие дети направлялись в федеральные центры.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операция по извлечению нейросистемы. Лечение ребенка занял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и это не окончательный этап.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средств, таких, как ортезы из термопластика,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ребенка, — рассказал профессор Анатолий Орешков.

Специалисты травмат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егулярно внедряют новые методы в лечени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здоровья детей. Ранее в больнице начали выполнять операции под контролем специального рентгенолог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электронно-оптического преобразователя. Этот метод позволяет проводить оперативны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без больших разрезов, с небольшим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м периодом.

Отметим,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о развитию детской медицины, чтобы вывести ее на бол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лет значите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изошли благодаря программе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Проведены ремонты в детских поликлиниках в районах 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иобретен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ступил автотранспорт. В 2024 году программа модернизации в регион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на эти цели выделено 557 млн рубл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선관위, "22대 총선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15만여 명"

전체 재외선거권자 197만명의 7.6%

21대 총선보다 15% ↓

(서울=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서 재외선거를 신고·신청한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이 15만 70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가 전날 오전 7시까지 집계한 결과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부재자(유학생·해외과거자 등)는 12만541명, 재외선거인은 3만160명이었다.

전체 재외선거권자 197만명(추정치)의 7.6% 수준이며, 지난 21대 총선 때의 17만7천348명보다 15.0% 감소한 수치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3만4천490명, 일본 2만5천230명, 중국 1만7천152명으로 3개국 신청자 수가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7만6천950명(51.0%)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는 4만7천905명(31.8%), 유럽은 1만9천769명(13.1%)으로 나타났다.

재외 선거인 명부 등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작성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같은 달 11일 확정된다.

선관위는 "재외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선 앞두고 수검표 실습

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재외 유권자의 소중한 뜻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흠 없이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사할린동포 민생현장 방문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찾아 영주귀국 동포들에게 설맞이 선물 전달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8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가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의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했다.

인천적십자병원 안에 있는 이 복지회관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1세 중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99년 설립됐다. 현재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약 70명이 입소해 지내고 있다.

최 차장은 이날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선물을 동포들에게 전달하며 설맞이 인사를 했다.

최 차장은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첫 설에 동포 어르신들을 만나 기쁘다"며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동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사할린동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을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지속적으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사업, 사할린동포법 제정 기념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52명 러 현지가족 방문...

내달 귀국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가족들 만나러 러시아로 출국 (서울=연합뉴스) 13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영주귀국자 역방문 지원사업으로 러시아 현지 가족을 만나러 떠나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의 승선을 돕고 있다. 2024.2.13 [대한적십자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대한적십자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역방문 지원사업 실시 (서울=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의 영주귀국자 역방문 지원사업으로 러시아 현지 가족을 만나러 떠나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52명이 13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2.13 [대한적십자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 대한적십자사 주하는 52명이다. (이하 한적)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52명이 러시아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13일 강원도 동해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러시아 '역(逆)방문' 참가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출생한 영주귀국자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거

귀국과 정착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역방문 사업은 영주귀국자들과 러시아 현지 가족의 이산문제를 해소하고자 2001년에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3년간 중단됐다가 작년에 재개됐다.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8천610명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한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후에도 현지에 남은 동포 1세대와 그 동반가족(2세대)의 영주

[우리말로 깨닫다]

어서 가라는 인사

우리말은 인사말이 단순해 보입니다. 다른 언어를 보면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때로는 밤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와 상관없이 '안녕하세요?'면 충분합니다. 아무 때나 만나면 같은 인사를 나누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인사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어의 인사말은 다양한 감정이 담겨있어 흥미롭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인사말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밤새 안녕하셨습니다?'였습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도 좋은 인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기에 그런 인사를 하냐고 하지만 편히 자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른의 경우는 밤의 잠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여러 번 깨기도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전 농촌의 아침인사는 거의 '밤새 편안하셨습니다?'였습니다. 농촌의 아침은 매우 일찍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동네 어른은 만나면 밤 동안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밤새 편안하였는지를 묻는 이 말이 우리말의 아침인사인 셈입니다.

외국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어디 가?'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끼리도 어디 가냐고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 그리 꼬치꼬치 캐묻느냐고 하지만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곳에 가면 같이 가고 싶고, 위험한 데 가면 말리고자 하는 게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대답하는 사람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일이 있어 서'라든가, '저기 좀' 정도로 얼버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대답은 듣고도 더 묻지는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데에도 사정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굳이 보자면 이 말이 우리말의 점심인사인 셈입니다.

한편 헤어질 때의 인사는 한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복잡한 편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우선 '잘 가'와 '잘 있어'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다녀오세요, 다녀올게' 등이 더해지면 복잡해집니다. 다시 올 곳이라면 갔다가 온다고 인사를 해야 정상적입니다. 만약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안녕히 계세요.'라고 한다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잘 있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느껴집니다. 우리말에서 작별인사는 많은 경우 다시 만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풍도 나들이라고 하여 나갔다가 들어올 것을 전제하는 합성어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거나 어르신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반가운 인사말을 듣습니다. 바로 '어서 와.'입니다. 이 말은 번역도 어렵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빨리 오라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영 어색합니다. 다른 언어로도 마땅한 번역이 없어서 환영한다는 말 정도로 바꾸어 씁니다. 우리말 '어서 와'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감정이 깊이 담겨있기 때문에 '빨리'의 의미인 '어서'를 쓴 겁니다. '어서 오세요.'는 그래서 우리말의 대표적인 환영인사가 되었습니다. 가게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인사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묘한 인사말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서 가라.'라는 인사말입니다. 이걸 정말로 번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헤어지는 것을 바라는 말투 같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헤어짐을 바라서 하는 인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쉬움이 더 깊게 묻어납니다.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그래도 보내주는 겁니다. 돌아가서 만나야 할 가족이 있고,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기에 애쉽지만 '어서 가라' 할 일을 하라는 인사말입니다.

저는 '어서 가라'는 인사말에서 깊은 정을 느낍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부모님의 '어서 가라'는 인사말은 때로 코끝을 찡하게 합니다.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어서 가라'니요. 천천히 발길을 옮기고 싶은데 '어서 가라'니요. 인사말은 가장 형식적인 말이지만, 가장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조국 수호자의 날

<사할린의 얼음 2024>에 참가 모집

2월 23일 사할린의 돌린스크 지역 나이바 강에서 열리는 제 13회 <2024 - 사할린 얼음> 겨울 낚시축제에 낚시 애호가들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체전과 남녀 바이애슬론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도 하고, 협찬이 제공하는 상품 추첨과 상호작용 경연, 야외음식이 제공된다. 올해 최고상의 부상은 자동차이다.

<사할린 얼음>축제는 사할린의 많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가족축제이다.남자와 동등하게 여자와 아동 단체경기도 진행되며, 이외에 엄마, 아빠, 자녀가 한 팀이 되는 가족팀 경연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도 참가할 수 있다.

단체전에서는 미리 단체복을 고안해 창의적인 경쟁도 한다.

사할린주 수산부 이완 라드첸코 장관은 "올해는 먼저 온라인으로 등록을 진행하며, 참가팀은 250팀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당일 현장 등록은 공식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였다.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24» соберет участников в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3-й раз любителей зимней рыбалки соберет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2024».

Рыбаки встретятся 23 февраля на реке Найба. Традиционно в программ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йдут коман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мужской и женский биатлон.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ризы в различных номинациях, лотереи от спонсоров, интерактивные конкурсы, угощения полевой кухни. Главным призом в этом году станет автомобиль.

Для многих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лед» - любимый семейный праздник. Наравне с мужчинами конкурируют женские и детские команды. Кроме того, запланированы и смешанные семейные команды – папа, мама, дет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Команды заранее продумывают свои костюмы, соревнуются в креативе.

«В этом году в приоритете регистрация онлайн, поскольку количество команд ограничено 250, рекомендуем не откладывать и подавать заявку.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льду будет доступна только при наличии свободных секторов»,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Радченко.

<러시아 스키> 사할린에서 열려

2월 10일 아니와 지역 트로이츠코예 마을에서 제 42회 전국 대중 스키경주가 열렸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4세부터 80세까지 2,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모였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눈싸움을 위한 마을, 야외 조리시설, 작은 조형물들이 있는 놀이터를 비롯한 많은 것들이 준비된 유익한 프로그램이 선수들과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참가자 중 가장 어린 스키수수는 200m에서 경주했는데 이는 가장 짧은 코스이고, 최대 장거리 코스는 10km로 2005년 이후 출생의 남자만 출전할 자격이 주어졌다. 매해 이 <러시아의 스키>경주에는 스포츠 은퇴자들이 참가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경기 주심판인 아니톨리 메나일로브가 말했다.

사할린 주민들은 많은 참가자들과 활발한 분위기, 음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즐길 수 있었고, 몇몇 참가자들은 <러시아 스키>대회를 가장 좋아하는 대회 중 하나라고 말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Лыжня России»

10 февраля в селе Троиц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остоялась XLII Всероссийская массовая гонка «Лыжня России».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съехались более 2000 спор-

тсмен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4 до 80 ле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ортсменов и зрителей ждала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городок для игры в снежки, полевая кухня,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с фигурками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Самые юные лыжники бежали 200 метров – это самая короткая гонка. Максимальная дистанция в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 10 км. Её бегут мужчины 2005 г.р. и старше. У нас каждый год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Лыжне России» ветераны спорта,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ют поддерживать себя в хорошей форме»,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судья соревнования Анатолий Меняйлов.

Сахалинцы отметили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музыку и улыбку детей. Некоторые участники поделились, что «Лыжня России» - одно из любим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극동의 극장들' 축제, 사할린에서 처음 개최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극동 극장축제가 개최된다. 지난 4년간 이 축제는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사할린 체호브센터에서 열린다. 축제 상연은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체호브센터는 현재 상연 시간표를 편성 중이며, 편성 표에는 극동지역의 우수 연극 상연과 러시아 대형극장의 공연이 포함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총지휘는 러시아 국민배우이며, 국립극장의 예술감독인 예브게니 미로노브가 맡고 있다.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едыдущие четыре года праздник сцены проходил в Хабаровске, а в нынешнем его примет сцена Чехов-центра. Фестивальные показы пройдут с 17 по 30 июня.

В театральном центре имени Чехова сообщили, что сейчас формируется афиша. Она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лучших спектаклей театр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и выступлений крупных российских театров. В качестве руководителя программы выступит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Театра Наций Евгений Миронов.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